

대구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0. 8. 15. (다해) | 제1688호



세계적 성모 발현지

프랑스 르르드 성지내,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성당에 한국을

대표하여 전시된

‘한국의 성모’

자수성화(刺繡聖畫)

화가 심순화(카타리나)씨가 그린
성모(聖母子)성화에 섬유예술가
김혜순(아네스)씨가 수를 놓고
매듭을 한 작품이다.
그림 위쪽 하늘의 세 천사는
삼위일체를, 아래쪽의 세 대천사와
색동옷의 네 남녀 어린이는
7성사를, 무궁화꽃 33송이는
예수의 33년 지상생애를,
꽃망울이 맺힌 12개의 연둣빛
꽃봉오리는 12사도를 각각 뜻한다.

사진제공 : 평화신문



성모 승천 대축일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 45)



하성호 사도요한신부 | 교구 사무처장

최근 개신교가 벌이는 자정운동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개신교를 변질 시킨 요인 중 하나가 목회자들이 성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의식이라고 지적하는 것 이 눈에 띈다. 오갈 데 없는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세워 하루 빨리 성장하고픈 세속적 욕심에 복음선포가 아니라 ‘예수무당’을 전한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생각하게 된다. 70~80년대 가톨릭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참으로 신뢰적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입교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가톨릭교회의 현주소는 “예비자 감소와 냉담자 증가!” 인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교구는 여러 해 동안 교구설정 100주년을 준비해오고 있다.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새 시대 새 복음화’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교구민들의 역량을 결집 하자고 외치면서, 슬로건도 “다시 새롭게 2011”로 정하였다.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영성운동 실천과 더불어 이미 우리는 “은총의 100주년, 1·3운동”도 시작하였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100주년 준비에 골몰하다 보니까 성모승천대축일에 관한 묵상도 100주년이란 생각의 틀을 벗어나질 못하겠다. 하긴 100주년 준비에 성실히 참여하는 신앙인은 ‘성모승천대축일’의 의미도 잘 깨달을 것이다. ‘성모승천’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구원의 완성에 앞서 들어가셨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구원 희망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 16,13)는 예수님의 물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 대답하였지만, 올바른 신앙고백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는 그 하나이었듯이, 교우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으면 다양하게 들 대답하겠지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도 ‘주님과의 온전한 일치’(구원) 그 하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모범을 보이신 ‘신앙의 복종’ 부터 실천해야 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 45) 우리도 이 인사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픈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필사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의 일치’ 임을 깨달을 것이다. ‘은총의 100주년, 1·3운동’을 실천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오늘 성모승천대축일을 경축하며 우리의 참 행복은 주님과의 일치라는 구원에 있음을 새삼 깨달으면 좋겠다.

오늘의 미사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당성가

259 성모승천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송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파견성가

254 하늘의 여왕

:: 참다운 성모님 사랑하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모 신심은 그 어느 신심 활동보다도 활발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서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병 치유나 기적적 현상에만 집착하여 성모 발현과 메시지만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면서 입으로만 하느님, 성령, 성모를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무조건 하느님 계시,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페뜨리거나, 우리 사회의 죄를 외면하고 개인의 깊은 상처나 죄책감을 건드려 미사 예물과 현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연옥, 지옥, 형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와 개인의 고통을 무작정 예수님이십자가 고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성모 공경을 발현이나 기적 현상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적인 전례 안에서 신앙생활의 힘을 얻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올바로 공경하는데 필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어머니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그분께 꽃다발이나 초를 봉헌하는 일보다도, 그분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일이다.

- 올바른 성모신심 중에서 -

성모 승천 대축일에…

박성규 엘리지오



